



우리 아이 한글 공부?

EBS <한글용사 아이야>가 딱입니다!

윤종성 EBS 심의시청자실 차장대우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야 용사'라고 불리고 있다. 이름을 붙여준 아이에게 물어보니 <한글용사 아이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는 '이 용사'이고 형은 '아 용사'라고 했다. 그걸 보면서 한글을 배우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필자 역시 <한글용사 아이야>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EBS는 예전부터 어린이들이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다. <바나나를 탄 끼끼> (2001), <한글친구 아라차>(2012), <한글이 야호>(시즌 1 : 2006, 시즌 2 : 2015) 등이 대표적이다. 두 작품 모두 어린이와 부모 시청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글용사 아이야>(이하 '아이야')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 2021년 4월부터 월간리에 방영 중인 시리즈이다. 아이야는 어린이(훈민이, 정음이)가 한글용사(ㅏ/ㅣ/ㅑ를 상징하는 3명)를 만나 조금씩 한글을 익혀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애초 2022년경 종영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계속 제작되고 있다.

한글용사
아이야

프로그램 소개

혼자서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훈민이와 정음이에게 파견된 한글이 찾아왔어요.
“어린이 용사, 도와줘!”
한글을 도 찾기 위해 어린이 용사로 변신한 훈민정음, 아이야와 함께 한글을 무사히 만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특징

통합적 언어발달을 위한 커리큘럼 구성
통 글자와 한글 자모 체계 결합 원리를 함께 노출하여 의미 중심과 발음 중심의 언어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주제 구성
매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약속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여, 어린이들의 사회화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수준의 어휘 확장
어린이 수준의 다양한 어휘를 주제로 하여,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어휘와 상황을 노출하여, 일상 경험과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른 쓰기 모델 제시
정확한 획순으로 한글을 쓰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정성스레 한 획씩 한글을 쓰는 장면을 통해 자연스레 손서에 대해 익힐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야의 탄생
아이야 캐릭터 속에는 한국적 요소들이 담겨있습니다.
한글의 고유한 형태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통 오방색, 선조들의 의복, 한국 도깨비와 전설 속 동물 해치 등 다양한 한국적 요소들을 캐릭터에 녹여냈습니다.

<한글용사 아이야>에서는 통 글자와 한글 자모 체계 결합 원리가 함께 노출되어 의미 중심과 발음 중심의 언어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음운의 소리를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언어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상대방 경청하기, 공감하고 맞장구치기, 적당한 소리로 말하기 등의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과 상대방 눈 바라보기, 고개 끄덕이기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담아내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전 언어영역의 통합적 발달을 도모하도록 기획하였다.

- 어린이 한글 프로그램 EBS <한글용사 아이야> 보도자료 참조

아이야는 어린이들의 흥미와 한글 습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흥미로운 설정을 취하고 있다. 먼저 '용사가 악당을 물리치고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전통적 서사구조를 기본으로 취하고 있다. 악당인 '천지'가 한글 단어를 망가뜨리면(글자를 바꾸거나 접는다) 선한 주인공(훈민이, 정음이)과 조력자인 한글용사가 힘을 모아 본래의 한글로 되돌린 다음, 한글카드를 획득하는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최근 에피소드에서는 훈민이와 정음이가 용사로 변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어린이 시청자들의 몰입이 더욱 강화되었다.



아이야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프로그램 전체의 화자(話者)이자 한글을 가르쳐 주는 할아버지, 한글을 먹어 치우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악어, 한글카드를 넣으면 해당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 등이다. 각각은 어린이 시청자들의 선호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악어와 할아버지의 외형을 조금 더 만화적으로(과장되게) 설정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적절한 CG와 특수효과를 삽입함으로써 화려한 유튜브 영상 등에 익숙해진 어린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최근의 에피소드들은 초기에 비해 CG의 분량이나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교육의 명가 EBS답게 교육적인 효과도 충분히 고려된 것이 역력하다. 어린이 시청자들이 부담감 없이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통합적 언어발달, 어린이들의 사회정서 개발, 바른 한글쓰기 등이 콘텐츠 전반에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글용사 디자인에 적용된 전통 오방색(적, 황, 청), 선조들의 갑옷 투구처럼 보이는 헬멧, 도포에서 모티브를 땀을 듯한 외투 등이 대표적이다. 한글용사 허리띠 버클 부분에서 전설 속의 동물인 해치와 도깨비 모양을 찾아볼 수 있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아이야는 변화된 미디어 이용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EBS 홈페이지 전편 다시 보기는 당연하고, (홀드백 기간이 있긴 하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굿즈와 뮤지컬 등 다양한 마케팅 믹스의 원천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글용사들의 무기(‘ㄷ’를 상징하는 뿔망치, ‘ㄴ’를 뜻하는 태극봉, ‘ㅌ’를 의미하는 부메랑), 한글자판기 등이 완구로 판매되고, 지역을 순화하며 뮤지컬로도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아이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EBS의 적극적인 구애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문화의 정수인 한글을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진화하는 아이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도 이제 다시 ‘야 용사’로 변신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겠다! 📺



2023년 EBS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진행된 한글날 특집 공개방송